

문식성 연구의 국제 동향

—Literacy Research Association(LRA)의 2016-2018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박소희] 델라웨어대학교 박사(제1저자)

김주환 안동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교신저자)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안동대학교 해외파견연구보조금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I. 서론
- II. 문식성 연구 동향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I. 서론

미국에서 문식성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세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문식성 개념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초적인 수준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문식성 개념은 단순히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에서 벗어나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 즉 기능적 문식성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1930년대에 이미 미국 국민의 대다수가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Snyder, 1993).

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문식성 개념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된다. 문식성은 읽기 및 쓰기 능력뿐만 아니라, 말하기 능력도 포함하고 있으며 더불어 계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Lemke(1997)는 문식성을 “현재 이용 가능한 어떤 특정한 기술(인쇄매체뿐만 아니라 소리, 영상, 그림 등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상징체계들)을 사용하여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의 집합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문식성은 매체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기능과 역할의 측면에서도 크게 확장되고 있다(이병민, 2005).

이렇게 문식성 개념이 변화하면서 문식성 연구의 성격과 범위도 확장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문식성 연구 관련 학술단체의 명칭 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1950년부터 문식성 연구를 수행해 왔던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전국독서학회(National Reading Conference, NRC)는 2010년부터 문식성 연구 학회(Literacy Research Association, LRA)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문식성 연구 단체인 국제 독서 학회(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IRA)도 2015년에 국제 문식성 학회(International Literacy Association, ILA)로 명칭을 바꿨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식성 연구가 본격화한 것은 한국독서학회가 창립된 1995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작문학회는 이보다 10년이 늦은 2005년에, 대학작문학회는 2010년에 출범했다. 이렇게 보면 국내의 문식성 연구 역사는 길게 잡아도 25년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국내의 문식성 연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매년 학술지에 발표되는 문식성 관련 연구 논문만 수백 편이 넘는다.¹⁾

21세기 문식 환경의 변화는 전 세계적인 동향이며, 이렇게 초문화, 초언어, 초국가적 상황에서 문식성 연구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모든 문식성 연구자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Gogolin, 2018).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찍부터 문식성 연구와 교육에 힘을 써 온 서구의 학회들 중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문식성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미

1) 지난 2019년 9월 21일 제3회 국어교육학자대회에 주최로 참여한 학술단체는 총 18개 단체였다. 물론 이 단체들의 성격들은 다르지만 문식성 관련 연구들이 크게 확장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국 문식성 연구 학회(Literacy Research Association, LRA)의 최근 3년간 학술대회(2016-2018)에서 발표된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문식성 연구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국내 문식성 연구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문식성 연구 동향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

문식성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특정 학술대회에서 특정 기간에 발표된 연구들을 분석한 경우이고(Still & Gordon, 2011), 다른 하나는 문식성 관련 저명한 저널에 특정 기간 내에 출판된 연구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김정숙·백윤경, 2017; 옥현진, 2010; 이순영, 2011; Morrison et al., 2011; Parsons, Gallagher, & George Mason University Content Analysis Team, 2016), 마지막은 해외의 문식성 연구 동향에 대한 소개를 바탕으로 국내의 문식성 연구 동향과 비교한 경우이다(이병민, 2005; 윤준채·이천희·김영란, 2009; 마이클 매케나·장봉기, 2011; 이순영, 2011)

위의 선행 연구들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것은 윤준채 외(2009)와 이순영(2011)의 연구이다. 윤준채 외(2009)에서는 국제 독서 학회 (IRA)에서 매년 실시하는 ‘What’s Hot in Literacy’ 설문 조사 틀을 활용하여 국내 연구자들의 문식성 연구 현황을 조사하였다. 반면에 이순영(2011)에서는 2005-2010년 동안 국내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대상으로 문식성 연구의 동향을 분석했는데, 한국독서학회의 [독서연구]와 IRA의 Reading Research Quarterly (RRQ)²⁾를 분석했다. 이 연구는 국내의 연구 동향과 국

2) 국제 독서 협회 (IRA)는 1950년대에 설립된 학술단체로 그 역사가 깊고, 이 단체에서 발

제 연구 동향을 비교해서 논의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05-2010 시기의 RRQ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 주제는 매우 다양한 편 인데, ‘문식성 실행·실천’, ‘글깨치기/유창하게 읽기’, ‘기능/전략/독해’, ‘테크놀로지/신문식성’, ‘독서 일반(개념, 이론)’, ‘부진아/저소득층 독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문식성 실행’은 문식성을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실천으로 보는 관점으로 1990년대 이후 관심이 높았는데, 이 시기에 이미 문식성 연구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음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 시기에 ‘테크놀로지/신문식성’에 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 문식성, 기능/전략/독해, 신문식성 등을 전통적으로 학교 문식성 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왔던 것들인데 이 시기에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반면에 국내의 [독서연구]에 게재된 총 141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읽기 일반(이론, 개념)’과 ‘문학 텍스트/서사 읽기’, 그리고 ‘교수법/독서 활동’ 관련 논문들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다. 특히 독서 분야의 개념(문식성, 교과 독서, 비판적 읽기 등)이나 이론(구성주의)을 탐구한 ‘읽기 일반’의 범주의 연구가 가장 많았다는 점이나 전통적으로 문학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들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을 보면 이 시기가 문식성 연구의 초창기임을 잘 알 수 있다.

이순영(2011)의 연구는 국내외의 문식성 연구 경향을 비교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RRQ라는 학술지가 문식성 연구의 국제 동향을 대표하지는 못하며, 비교 대상이었던 국내의 문식성 연구들의 초점이 매우 달랐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LRA의 최근 3년간 학술대회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문식성 연구의 국제적 동향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특별히 LRA를 선택한 이유는 이 학술대회가 미국에서 열리는 문식성 연구자만을 위한 학술대회 중 가

행하는 RRQ는 문식성 연구 분야에서는 가장 저명한 학술지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장 오래된 것이고,³⁾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영국 등 다양한 국가의 문식성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국제 학회의 성격을 띠며, 문식성 연구 관련 단일 학회로는 가장 다양한 연구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LRA가 문식성 연구 관련 유일한 국제 학회는 결코 아니기 때문에, LRA 학술대회 분석 결과를 ILA의 2018 What's Hot in Literacy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ILA의 2018년도의 설문 조사는 전 세계 91개 국가 및 영토의 2,097명이 응답한 결과로, 전 세계 교육 현장의 문식성 교육에 대한 요구를 잘 보여준다.

〈표 1〉 ILA(2018) What's Hot in Literacy 설문 결과

주제1: 평등 문제(Equity Issues)		
화제	관심도(hot)	중요도(importance)
문식성 교육의 평등	8위 (50%)	2위 (86%)
책과 내용에의 접근성	11위 (42%)	5위 (82%)
다양성	6위 (54%)	10위 (77%)
모국어 문식성	17위 (26%)	14위 (63%)

주제2: 지역사회·문식성 연결(Community-Literacy Connections)		
화제	관심도(hot)	중요도(importance)
초기 문식성	2위 (57%)	1위 (87%)
가정의 참여	13위 (35%)	9위 (79%)
지역사회와 파트너십	16위 (27%)	16위 (59%)

주제3: 문식성 교육의 우수성(Excellence in Literacy Education)		
(예비) 교사 교육	관심도(hot)	중요도(importance)
(예비) 교사 교육	12위 (39%)	3위 (85%)

3) LRA는 1952년에 남서부 독서학회(Southwest Reading Conference)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1959년부터는 전국독서학회(National Reading Conference)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2010년부터 지금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교사의 전문성 학습 및 개발	9위 (47%)	7위 (81%)
문식성 지도자로서의 행정가들	15위 (29%)	12위 (73%)
특화된 문식성 전문가들을 위한 성취 기준들	14위 (32%)	15위 (61%)
주제4: 문식성 교수의 개별화(Personalizing Literacy Instruction)		
차별화된 교수를 위한 전략들	5위 (54%)	4위 (85%)
형성 평가	4위 (56%)	8위 (80%)
주제5: 21세기 기능들 기르기(Buliding 21st-Century Skills)		
학문적 문식성	7위 (52%)	6위 (82%)
비판적 문식성	10위 (43%)	11위 (74%)
디지털 문식성	1위 (63%)	13위 (67%)
총괄 평가	2위 (57%)	17위 (48%)

III.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열린 LRA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 제목들의 키워드 빈도 계산을 통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지난 3년간의 문식성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LRA 학술대회는 먼저 그해의 전체 주제를 정한 뒤, 그 주제에 맞는 연구 프로포절의 모집 공고를 1월에 게시하고, 3월 초까지 모집된 연구 프로포절의 심사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가장 최근의 2018년 학술대회를 기준으로 보면 LRA 학술대회는 총 14개 분과, 여섯 세션 유형들로 구성된다. 년도 별 각 분과명 및 각 분과에서 다뤄진 세션 수는 다음과 같다.

〈표 2〉 각 년도 분과별 세션 수

분과 명	2016	2017	2018	합계
1 분과: 예비교사를 위한 문식성 교육(Preservice Teacher Education in Literacy)	37	29	29	95
2분과: 현직교사를 위한 문식성 교육과 전문성 개발(In-service Teacher Education/Professional Development in Literacy)	31	33	22	86
3분과: 문식성 교수 학습(Literacy Instruction and Literacy Learning)	58	43	37	138
4분과: 문식성 평가와 공공 정책(Literacy Assessment, Evaluatin, and Public Policy)	13	5	10	28
5분과: 초기 및 초등 문식성(Early and Elementary Literacy Processes)	23	22	17	62
6분과: 청소년, 대학생, 성인 문식성(Adolescent, College, and Adult Literacy Proceses)	34	25	18	77
7분과: 학교 안팎 문식성 실천의 사회, 문화, 정치적 쟁점들(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Issues of Literacy Practices In and Out of School)	64	41	46	151
8분과: 다언어, 다문화 상황에서의 문식성 학습과 실천(Literacy Learning and Practice in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Settings)	28	23	23	74
9분과: 글 분석/아동, 청소년, 성인 문학(Text Analysis/Children's, Young Adult, and Adult Literature)	21	15	15	51
10분과: 매체와 테크놀로지 문식성(Literacy Technology and Media)	19	21	22	62
11분과: 연구의 이론, 방법, 실천(Research Theory, Methods, and Practices)	24	22	22	68
12분과: 문식성 교수와 학습에 대한 국제 연구(International Research on Literacy, Teaching and Learning)	해당 없음	8	6	14
14분과: 기타 주제들(Other Topics)	10	7	6	23
총계	362	294	273	929

총 여섯 세션 유형들 중 첫 번째 유형인 완성된 소논문(paper) 세션은 저널에 투고하기 전에 다른 연구자들의 피드백을 받을 목적으로 이미 완성된 소논문들을 발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원탁 발표(roundtable)는 8명에서

10명까지 앉을 수 있는 원탁에서 유사한 주제에 대한 두 개 이상의 현재 진행형인 연구들을 발표하는 세션이다. 세 번째, 심포지움은 연구자들이 세션의 주제를 정하고 같이 발표할 연구자들까지 섭외하여 하나의 세션을 운영하는 형식이다. 네 번째는 대안적 형태로 연구자들이 한 세션을 구성하는 프로포절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심포지움과 동일하나, 청중들을 참여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심포지움 세션과 차이점이 있다. 다섯 번째로 연구 모임 세션들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연구자들이 연례 학술대회 기간 중 3일 동안 특정 주제에 대해서 관심사를 공유하고 함께 탐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8년에 새롭게 추가된 포스터 세션은 현재 진행형인 연구들에 대해서 포스터를 걸어 두고 찾아오는 청중들에게 연구에 대해 발표하는 방식이다.

이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학술대회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맥락 내에 위치한 키워드들의 빈도 계산(keyword in context, KWIC)을 바탕으로 하는 양적 내용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Krippendorff, 2004). 첫째, Textfixer라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Online Word Counter라는 프로그램⁴⁾에 각 년도의 각 분과별 세부 연구 제목들을 입력하여 제목에 포함된 단어들의 출현 빈도를 산출하였다. 이때 연구 모임과 포스터 세션은 본격적인 연구물이라 보기 어려워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둘째,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된 각 영역별 연구 제목에 포함된 출현 단어들 중 출현 빈도 상위 5위 안에 드는 단어들을 각 영역의 키워드로 간주하고 별도의 엑셀 파일에 정리하였다. 셋째, 년도 별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2016년부터 2018년 학회까지 3년에 걸쳐 공통적으로 언급된 키워드들을 선정하고, 그 키워드들이 어떤 연구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범주화하였다.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통해 확인된 각 분과 별 연구 초점을 ILA(2018)의 What's Hot in Literacy와 비교 분석했다.

4) <https://www.textfixer.com/tools/online-word-counter.php>

IV. 연구 결과

1. 학교 안팎, 다언어, 다문화 상황에서의 문식성 학습과 실천 영역

LRA 학술대회에서 학교 안팎, 다언어 및 다문화 상황에서의 문식성 학습과 실천에 대해 다루는 분과들은 7분과인 학교 안팎 문식성 실천의 사회, 문화, 정치적 쟁점들과 8분과인 다언어, 다문화 상황에서의 문식성 학습과 실천이다. 이 중 7분과는 지난 3년간 총 151개의 세션들을 포함하며 전 분과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8분과에서도 총 74개의 세션들에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LRA 학술 대회가 최근 3년간 문식성 관련 여러 연구 주제들 중에서도 학교 안팎, 다언어 및 다문화 문식성에 매우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영역에 속한 두 분과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키워드는 비판적(critical)과 정체성(identity/identities)이었다. 먼저, 비판적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비판적 문식성(critical literacy), 비판적 디디스кур스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비판적 복합양식 문식성(critical multimodal literacies) 등 비판적 시각을 가진 문식성 연구 방법을 강조하고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문식 행위자의 비판적인 탐구 활동(examining), 비판적 문식 행위에의 참여(engagement) 및 그 참여가 이루어지는 공간(spaces)에 대해서도 탐구했다.⁵⁾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특정 성별, 인종, 다른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의 언어 사용 및 그들의 문식 행위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다루어졌다.⁶⁾

-
- 5) 비판적 문식성을 통해서 관점 전환하기: 5학년 학생들의 성별, 불평등, 폐미니즘에 대한 이해(Shifting Perspectives Through Critical Literacy: Fifth Graders' Take on Gender, Injustice, & Feminism)(LRA, 2017: 35)
 - 6) 어린 ELL 학생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 변형을 통한 여정: 무엇이 요구되는가? (A Journey of a Young ELL Student Through Social and Cultural Identity Transformation:

7분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키워드는 흑인(black)과 여학생(girl)이었다. 그 단어들이 사용된 맥락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연구자들은 특정 성별의 흑인이나 흑인 집단 일반의 정체성, 목소리(voices), 문식성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을 수행했다.⁷⁾ 여학생과 관련해서는, 주로 흑인이나 특정 인종(black, Muslim, Latina), 피난민, 또는 영어 학습자들(English-language learners, ELLs)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학생들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하는 문식 행위의 특성과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로 탐구하였다.⁸⁾ 결론적으로 이 공통 키워드들은 이 분과 연구들의 상당수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식성 교육 및 실행의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의 학교 안팎, 온라인에서의 문식 활동, 목소리, 정체성 등을 탐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8분과에서는 다언어, 다문화 관련된 주제들 중에서도 특히 이중언어(bilingual), 이중언어문식자(biliterate) 및 이중언어문식성(biliteracy), 그리고 최근 이 분야 연구의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교차적언어사용(translanguaging)이라는 단어들이 최근 3년 학술대회에서의 공통 키워드로 확인되었다. 이 중 교차적언어사용은 2016년에서 2018년으로 갈수록 출현 빈도가 높아졌다. 이중언어 및 이중언어 문식성에 관련된 연구들은 이중언어 화자들이 영어 및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나, 두 언어 모두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또는 이중언어 화자들의 언어적 및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탐구했다.⁹⁾ 교차적언어사용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이중언어 화자들에게 영어

What Does It Take?)(LRA, 2016: 106)

- 7) 목소리 큰 흑인 여학생들을 사랑하기: 왜 흑인 여학생들의 문식성이 중요한지 이해하고 교차성들에 대해 탐구하기(Loving Loud Black Girls: Examining Intersectionalities and Understanding Why Black Girl Literacies Matter)(LRA, 2018: 129)
- 8) “나는 페이스북에서 영어를 많이 배워요”: 피난민 배경을 가진 여학생들 사이의 언어와 문식성 놀이(“I Learn a Lot of English on Facebook”: Language and Literacy Play Among Girls with Refugee Backgrounds)(LRA, 2016: 80)
- 9) 초기 이중언어 학생의 디지털 작품에서의 다양한 목소리 사용 (Emergent Bilingual Students' Use of Multiple Voices in Digital Compositions)(LRA, 2018: 48)

또는 두 언어 모두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적당한지를 탐구하는 연구들에서 많이 사용되었다.¹⁰⁾

7-8분과를 뚫은 학교 안팎, 다언어, 다문화 상황에서의 문식성 학습과 실천 영역은 ILA(2018)의 설문에 포함된 17개 화제들 중 평등 문제라는 주제에 속하는 문식성 교육에서의 평등(equity in literacy education), 다양성(diversity), 모국어 문식성(mother tongue literacy), 그리고 21세기 기능의 확립이라는 주제에 속하는 비판적 문식성이라는 화제들과 관련이 있다. 설문 참여자들은 이들 중 문식성 교육에서의 평등이 전체 17개 화제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나, 나머지 화제들에 대해서는 다양성이 10번째, 비판적 문식성이 11번째, 모국어 문식성이 14번째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화제들에 대한 설문 참여자들의 관심도도 다양성이 6위로 가장 높았고 모국어 문식성은 17위로 가장 낮았다. 이를 통해 볼 때, LRA 학술대회는 학교 안팎, 다언어, 다문화 상황에서의 문식성 학습과 실천에 문식성 교육 계 전반의 관심이나 가치 부여 정도에 비해 매우 큰 관심 및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사 교육 영역

LRA 학술대회에서 교사 교육과 관련된 분과들은 1분과인 예비교사를 위한 문식성 교육과 2분과인 현직교사를 위한 문식성 교육과 전문성 개발 두 가지이다. 전체 14개 분과의 세션들 중에서 교사 교육과 관련된 이 두 분과의 발표 세션 수를 합치면 181개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교사 교육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공통 키워드는 쓰기, 비판적, 학

10) 이중언어 학습자의 온라인 읽기에서 의미 구성을 위한 교차적언어사용: 탐구적 사고 구술 연구 (Bilingual Learners' Translanguaging for Meaning Making in Online Reading: An Exploratory Think-aloud Study)(LRA, 2017: 68)

습, 코칭이었다. 단어들이 사용된 맥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지난 3년간 교사 교육 영역의 두 분과들은 ‘예비 교사 및 교사에게 효과적인 쓰기 교수법을 가르치는 방법’, ‘예비 교사 및 교사의 쓰기 교수에 관한 정체성’, ‘쓰기에 관한 대학의 수업이나 전문성 개발 연수가 예비 교사 및 교사의 쓰기 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 주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다.¹¹⁾

1분과에서는 2분과에 비해 예비 교사들의 비판적 문식성이나 관점, 접근 등을 함양하는 방법 및 그들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연구들이 많았다.¹²⁾ 2분과에서는 현직 교사들의 학습과 코칭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먼저 현직 교사들의 문식성 교수 관련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학습의 상황은 오프라인부터 온라인에 걸쳐 다양 했으며, 교사 학습의 목적으로 교실에서의 글에 대한 논의부터 학문적 문식성에 대한 것까지 범위가 다양했다.¹³⁾ 코칭에 대해서는 코칭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는 문헌 연구와 현직 교사의 효과적인 코칭을 위한 모델들의 탐색, 또는 효과적인 코칭을 촉진하기 위한 테크놀로지의 활용(온라인 또는 비디오) 방법 등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¹⁴⁾

ILA(2018)의 설문 결과와 비교해 보면, 교사 교육 영역은 17개의 설문 대상 화제들을 더 큰 주제로 묶은 것 중 문식성 교육의 수월성(excellence in literacy education)에 해당한다. 이 중 예비 교사 교육(teacher preparation)과 전문성 학습과 개발(professional learning and development)이라는 화

11) 예비 교사에서 쓰기 교사로: 대학에서의 쓰기 교육 방법론 수업이 교생 실습 동안에 쓰기 수업에 미치는 영향 (Pre-Service Teacher to Teacher of Writing: Influence of a Writing Methods Course on Teaching Writing During Student Teaching)(LRA, 2016: 133)

12) “사회 정의” 문식성 교육을 위한 비판적 접근: 새 교사의 “평등”과 “텍스트”에 대한 개념에서 시작하기 (A Critical Approach to “Social Justice” Literacy Education: Beginning with New Teachers’ Notions of “Equity” and “Texts”)(LRA, 2016: 116)

13) 교사의 온라인에서의 전문성 학습에 대한 흥미: 전국 단위 설문 (Teachers’ Online Professional Learning Interests: A National Survey)(LRA, 2017: 58)

14) 문식성 코칭과 전문성 학습 촉진을 위한 다중 모델들 (Multi-tiered Models of Literacy Coaching and Professional Learning Facilitation)(LRA, 2018: 100)

제들이 교사 교육 영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ILA 설문의 예비 교사 교육은 문식성 교육자, 정책 입안자, 미디어의 관심도 측면에서는 설문 조사 대상 17개 주제 중 12위에 그쳤으나, 문식성 교육의 발전을 위한 이 주제의 중요도 측면에서는 3위로 꼽혔다. 전문성 학습과 개발은 관심도 측면에서는 9위, 중요도 측면에서는 7위로 꼽혔다. 이를 통해 볼 때, LRA 학술 대회에서는 교사 교육 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 교육 현장 전반보다는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문식성 교수, 학습, 평가 및 정책 영역

LRA 학술 대회의 3분과는 문식성 교수와 학습에 대한, 4분과는 평가와 정책에 대한 연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두 분과에 포함된 세션의 총 수는 166 개로, LRA 학술대회 내에서 세 번째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이 중 문식성 교수와 학습 분과에서 다뤄진 세션 수는 총 138개로 전체 분과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발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보면 발표 세션의 수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현장 교육에 그 영향력이 큰 평가와 정책에 대한 분과는 지난 3년간 28개의 세션을 통해 연구들을 선보여, 전 분과를 통틀어 비중이 가장 적은 편에 속했다.

문식성 교수와 학습 분과에서 발표된 세부 연구 제목들에는 분과 명에 포함된 단어들 외에도 읽기, 쓰기, 교사, 학생이라는 단어들이 최근 3년의 학술대회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읽기의 경우, 독해(reading comprehension)나 읽기 어려움(difficulties), 또는 중재(intervention), 공유된 읽기(shared reading), 안내된 읽기(guided reading), 묵독(silent reading), 학습을 위한 읽기(reading to learn) 등 읽기 전략들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¹⁵⁾ 쓰기와 관련해서는 설득적(persuasive), 논증적(argumen-

15) 2학년 학생들의 읽기 능력에 더 빈번하고 정교화 된 안내된 읽기 접근법이 미치는 영향

tative), 의견(opinion), 비소설(nonfiction), 절차적(procedural) 등 특정 쓰기 장르의 교수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고, 상호작용적(interactive) 또는 협동적(collaborative), 쓰기 워크샵(workshop) 등 쓰기 교수법에 대한 연구들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외에 학생들의 쓰기 발달 및 평가에 대한 연구들도 있었다.¹⁶⁾

교사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사의 의사 결정(decision-making), 지식, 태도, 신념(knowledge, attitude, belief), 관점(perspectives, views), 발화, 담화, 언어(talk, discourse, language) 등에 초점을 맞췄다.¹⁷⁾ 학생에 대한 연구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motivation), 정체성(identity), 독해(reading comprehension), 인식(perceptions) 등에 초점을 맞췄다.¹⁸⁾ 또한 학생들 중에서도 청각 장애(deaf and hard of hearing), 특수 교육(special education) 대상, 자폐 스펙트럼(autism spectrum disorder), 부진한(struggling) 학생들 등 교사의 특별한 교수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에 대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외에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 작용이나 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있었다.

문식성 평가와 정책에 관한 분과에서는 발표 수가 다른 영역들에 비해 현저히 적어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된 단어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평가 및 정책 관련 분과답게 평가의 타당도(validity), 타당화(validation)나 미국에서 평가와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주체인 주(state)가 많이 언급되었

(The Effects of a More Frequent and Sophisticated Approach to Guided Reading on Second Graders' Reading Ability)(LRA, 2018: 118)

- 16) 논증적 글쓰기를 위한 토론에 대한 7학년 학생들의 인식 (Perceptions of Seventh Graders in using Debate to Support their Argumentative Writing)(LRA, 2016: 113)
- 17) 중재에 대한 반응 수업 동안에 교사가 사용하는 교수적 언어와 학생들의 독립성에 대한 탐구 (Examining Teachers' Instructional Language and Students' Independence During Response to Intervention)(LRA, 2017: 60)
- 18) 방과 후 문식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동기에 대한 연구 (Exploring Students' Motivation in an After-School Literacy Program)(LRA, 2016: 43)

다. 구체적으로, 특정 읽기 또는 쓰기 검사 도구를 개발한 뒤 평가의 타당도를 확인하는 연구나¹⁹⁾ 각 주들의 문식성 교육 정책, 교육과정, 평가 또는 공통 핵심 성취 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의 자료나 주에서 제공한 공통 핵심에 관련된 자료들 및 그 사용 맥락의 분석에 대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²⁰⁾

ILA(2018) 설문에 포함된 17개의 화제들 중 차별화된 교수를 위한 전략들(strategies for differentiating instruction), 형성 평가(formative assessment), 총괄 평가(summative assessment)가 문식성 교수, 학습, 평가 및 정책에 관한 3, 4분과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차별화된 교수를 위한 전략들이라는 화제는 관심도 측면에서는 5위를 기록했고, 중요도 측면에서도 4위를 기록해 설문에 참여한 문식성 교육자들로부터 중요도에 부합하는 관심을 받고 있었다. 형성 평가의 경우 관심도 측면에서는 4위에, 중요도 측면에서는 8위에 꼽혔다. 총괄 평가의 경우는 관심도 3위, 중요도 17위로 관심도와 중요도 사이의 순위 차가 컸다. 이 결과는 현재의 교육 현장에 총괄 평가나 형성 평가가 미치고 있는 영향은 큰 편이나, 특히 총괄 평가의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중요도 설문에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4. 초등, 청소년, 대학생 및 성인 문식성 영역

LRA 학술 대회의 5-6분과는 문식성 교육의 대상인 특정 연령 집단의 문식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5분과는 어린이부터 초등학생들까지의 비

19) 두 개의 초기 문식성 평가들이 어린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되었을 때의 동시적 타당도 탐구하기 (Exploring the Concurrent Validity of Two Common Early Literacy Assessments When Used with Young English Learners)(LRA, 2017: 25)

20) 맥락들을 가로지르는 문식성 정책들에 대한 이해: 여러 주에서 이루어지는 문식성 교육 과정 관련 의사 결정에 대한 탐구 (Understanding Literacy Policies Across Contexts: A Multi-State Examination of Literacy Curriculum Decision-Making)(LRA, 2018: 128)

교적 초기의 문식성에 대한, 6분과는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는 집단의 문식 행위에 대한 연구들을 다룬다. 두 분과에 포함된 세션 수를 합치면 139개로 위에서 살펴본 세 영역 다음으로 많은 세션들이 지난 3년간의 학회에서 진행되었다.

5-6분과를 통틀어 가장 자주 언급된 단어들은 읽기와 쓰기였다. 근소한 차이였지만, 초기 및 초등 문식성에 관한 5분과에서는 읽기 연구가 쓰기 연구에 비해 조금 더 많았고, 청소년 이상의 문식성을 다루는 6분과에서는 쓰기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다. 먼저 쓰기에 대한 연구들은 아동(young children), 청소년(adolescents), 남성(men), 여학생(girl), 학부생(undergraduate), 대학원생(graduate), 성인(adult) 등 다양한 문식 행위자들의 글쓰기 실태, 이들의 쓰기 관련 자아 효능감(self-efficacy)에 관심을 두었다. 또한 쓰기 전략이나 서사(narrative) 또는 설득(persuasive)과 같은 쓰기 목적별 글쓰기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이나 학문적(disciplinary), 학술적(academic), 역사적(historical), 과학(science) 등과 특정 분야의 학문적 글쓰기에 대한 연구들도 다수 있었다. 이와 같은 특정 내용 분야의 학문적 글쓰기를 지도하는 연구들은 주로 6분과에서 발견되었다.²¹⁾

한편 5분과의 읽기에 대한 연구들은 알파벳 읽기, 일견 어휘(sight words) 읽기, 유창성(fluency), 어휘(vocabulary), 독해(reading comprehension) 등 초기 및 초등 독자들의 읽기를 구성하는 하위 기능들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나 초기 및 초등 독자들의 독자로서의 특징들에 초점을 맞추었다.²²⁾ 반면에, 6분과의 읽기에 대한 연구들은 하위 기능들 각각에 대한 탐구 보다는 학습의 한 행위로서의 읽기나 쓰기 및 사고와 관련된 문식 행위로서

-
- 21) 동기화된 또는 동기화되지 않은? 중학생들의 쓰기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어떻게 학년에 따라 변화하는가? (Motivated or Unmotivated? How Middle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for Writing Shifts Through the Grades)(LRA, 2016: 27)
 - 22) 학생들의 초인지와 어휘 학습 (Student Metacognition and Vocabulary Learning) (LRA, 2017: 24)

의 읽기, 읽기 동기, 또는 읽기/쓰기 부진아들(struggling readers/writers)에 관심을 가졌다.

이 외에 5분과에서 독특하게 관심을 가진 주제는 놀이였다. 특히 연구자들은 극 놀이(dramatic play)나 놀이 기반의 문식성 교육과정이 아이들의 말하기나 쓰기 미치는 영향 등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²³⁾ 6분과에서는 학문적 문식성(disciplinary literacy)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학문적 문식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사들의 정의부터 학생들의 학문적 문식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연구들까지 다양했다.²⁴⁾

이 영역과 관련된 ILA(2018)의 화제로는 초기 문식성(early literacy)이 유일하다. 설문 참여자들의 초기 문식성에 대한 관심도는 2위였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 화제의 중요도는 1위였다. 반면에 LRA에서 초기 및 초등 문식성에 대한 세션들의 비중은 전체 14개 분과들 중에서 8위를 차지해 교육 현장과 LRA에 참여하는 학자들 사이의 초기 문식성에 대한 관심도 및 중요도의 온도차가 큼을 알 수 있다.

5. 연구의 이론, 방법, 실천 영역

이번에 살펴볼 영역은 연구 이론 및 방법론에 관한 11분과이다. 지난 3년의 학술대회에서 총 68개의 세션들이 이 내용들을 다루었다. 이 영역의 발표들에서 비교적 공통적으로 언급된 단어들은 비판적과 복합양식(multimodal)이었다. 비판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맥락을 살펴본 결과, 11분과에

-
- 23) 극작가 같은 유치원생들: 글 놀이에서의 복합양식적 사회 전략들의 사용 (Kindergarten Students as Playwrights: Utilizing Multimodal Social Strategies in Dramatic Play) (LRA, 2018: 123)
- 24) 학문적 문식성이란 무엇인가?: 6-8학년 교사들의 관점으로부터 도출된 견해 (What is Disciplinary Literacy?: A View from the Perspective of Teachers in Grades 6-8)(LRA, 2018: 33)

서는 주로 비판적 분석, 비판적 담화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복합 양식 비판적 담화 분석(multimodal critical discourse analysis), 비판적 시각 분석(critical visual analysis)과 같이 비판적 문식성 관점에서 문식 현상들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²⁵⁾ 복합양식과 관련해서는 복합양식 비판적 담화 분석, 복합양식 상호작용 분석(multimodal interaction analysis), 복합양식 민족지학(multimodal ethnography), 지리적 기호학 분석(geo-semiotic analysis) 등과 같은 복합양식을 포함하는 문식 활동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들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또한 다양한 문식 행위자들의 복합양식 작문 과정이나 그 결과물에 대한 분석, 다양한 텍스트들의 복합양식 텍스트로서의 특징, 복합양식 작문이나 문식 행위가 학생들의 내용 이해나 정체성 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발표되었다.²⁶⁾ ILA(2018)은 연구자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17개의 화제 중 연구의 이론 및 방법에 대한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비판적과 복합양식이라는 키워드는 비판적 문식성 및 디지털 문식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비판적 문식성에 대한 설문 참여자들의 관심이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도는 10위와 11위로 높지 않았으나, 디지털 문식성에 대한 관심도는 1위로 높았다. 반면에 설문 참여자들이 꼽은 디지털 문식성의 중요도는 13위에 그쳤다. 이를 통해 볼 때, 지난 3년간의 LRA 학술대회는 교육계 전반의 비판적 문식성에 대한 관심 및 강조에 비해 비판적 문식성을 연구의 이론 및 방법으로서 더욱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의 대상 및 방법으로써 디지털 문식성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25) 그림책 내의 사회문화적 담화에 대한 비판적 담화 분석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Sociocultural Discourses within a Picturebook)(LRA, 2017: 90)
- 26) 아동들의 문식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복합양식적이고 시각적인 연구 방법론들을 사용하는 것의 잠재력 (Potentials of Multimodal and Visual Research Methodologies for Understanding Young Children's Literacy Practices)(LRA, 2017: 98)

6. 테크놀로지

LRA 학술대회의 10분과에 해당하는 매체와 테크놀로지 문식성 분과는 지난 3년간 총 62개의 세션을 포함했다. 키워드 분석 결과, 지난 3년간 이 분과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들은 디지털, 온라인, 복합양식이었다. 디지털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는 연구들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나 디지털 복합양식 과학 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디지털 작문 및 비디오 제작 활동들을 포함하는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매체와 도구들의 활용, 디지털 환경에서 학생들이 수행하는 문식 활동들의 특성들, 학생들의 디지털 문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발표되었다.²⁷⁾

온라인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자료, 온라인 텍스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 쓰기나 읽기 등 문식 활동의 재료 및 공간으로써 온라인의 특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나 온라인 교수, 온라인 공개수업(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 등 문식성 교수와 학습의 공간으로써의 온라인에 주목한 연구들이 많았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읽기나 쓰기 자체가 기준 인쇄물 기반의 읽기 쓰기와는 다른 점들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온라인에서의 쓰기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디지털, 복합양식 또는 작문 등의 단어들을 함께 언급하였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협동적 읽기 및 쓰기 활동들에 대한 연구들도 발견되었다.²⁸⁾

마지막으로, 복합양식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복합양식 작문에 초

27) 디지털 비디오 작문에서 쓰기의 역할에 대한 어린이들의 인식: 인도적 접근법 (Children's Perceptions of Writing for Digital Video Composition: A Humanizing Approach) (LRA, 2018: 93)

28) 온라인 학습 토의를 맥락화하기: 학습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수자들의 실천들 (Contextualizing Online Learning Discussions: Instructor Practices to Support Learners) (LRA, 2016: 54)

점을 맞췄다. 구체적인 연구 주제는 복합양식 작문의 과정 및 결과물 자체의 특징이나 복합양식 작문을 통한 문학 작품이나 내용 교과의 이해를 깊이 하는 방법, 복합양식 작문 과정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정체성, 복합양식 작문의 평가 등으로 다양했다. 그 외에 복합양식성(multimodality)을 복합문식성(multiliteracies), 사회 기호학(social semiotics) 등의 개념 등과 비교하는 연구도 있었다.²⁹⁾

LRA 학술대회의 10분과는 ILA(2018) 설문에서 다뤄진 화제들 중 디지털 문식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디지털 문식성에 대한 설문 참여자들의 관심도는 1위였으나, 설문 참여자들이 꼽은 이 화제의 중요도는 13위였다. 10분과의 세션 수로만 봤을 때에는 ILA(2018)의 중요도 설문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지만, 10분과 이외의 다른 분과들에서도 디지털이나 온라인에서의 문식성 교수 학습에 대한 연구들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7. 문학 교육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글 분석 및 아동, 청소년, 성인 문학과 그것의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을 다루는 9분과이다. LRA 학술대회 내에서 9분과의 비중은 지난 3년간 총 51세션으로 그리 크지 않아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키워드의 출현 빈도 역시 높지는 않았다. ILA(2018) 보고서에서도 문학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화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공통 키워드들 중 두드러지는 것들은 책/그림책, 비판적이었다. 책 또는 그림책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뉴베리, 칼데콧 등의 수상작이나 유명한 문학 작품들에 표현된 인종, 문화, 성별에 관련한 다양성의 분석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아동 문학(children's

29) 학문적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복합양식 작문에 비계를 제공하기 (Scaffolding Multi-modal Composing to Support Disciplinary Learning)(LRA, 2017: 43)

literature), 청소년 문학(young adult literature), 소설, 단행본(chapter book or trader book), 그림책(picturebook) 등 다양한 유형과 장르의 문학 작품 자체의 텍스트적 특성이나 독자인 학생 반응의 특성들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³⁰⁾ 비판적이라는 단어는 문학 작품들에 대한 비판적 내용 분석(critical content analysis)을 실시한 연구들에서 주로 언급되었다.³¹⁾

이 영역과 관련된 ILA(2018)의 화제는 비판적 문식성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교실에 있는 학생들의 인종, 문화, 성별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텍스트에 표현된 문화적 요소들은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현장의 문제의식과 연구자들의 텍스트 분석의 방향이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미국 LRA에서 주최하는 최근 3년(2016-2018)간의 연례 학술대회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총 14개 분과 중 관련성이 높은 것끼리 범주화하여 일곱 내용 영역을 구성하고, 각 내용 영역에 해당되는 분과들의 맥락화된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내용 분석을 실시했다. 각 분과별 공동 키워드들을 종합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비판적이라는 단어가 총 다섯 분과(1, 2, 7, 8, 11)에서 매우 높은

-
- 30) 누가 대표되었나: 뉴베리 수상작들의 다양성에 대한 서술이 시간이 흐르며 변화했나? (Who Is Represented: Have Depictions of Diversity in Newbery Winner Books Changed Over Time?)(LRA, 2016: 43)
- 31) 갈등의 장면들: 무슬림과 아프리카계 흑인에 대한 만화 소설에서 나타나는 인종주의, 사회 정의, 폭력, 희망에 대한 비판적 내용 분석 (Visions of Conflict: A Critical Content Analysis of Racism, Social Justice, Violence, and Hope in Muslim and African American Graphic Novels)(LRA, 2017: 42)

빈도로 언급되었다. 비판적 문식성이 중심이 되는 학교 안팎, 다언어, 다문화 상황에서의 문식성 학습과 실천 영역과 달리 교사 교육 영역과 문식성 연구의 이론, 실천, 방법 영역에서도 비판적 문식성이 중요시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LRA 학술대회는 비판적 문식성이라는 접근법을 토대로 미국 또는 서구 사회의 주류인 백인의 문식 행위보다는 흑인이나 다중언어 화자의 문식 행위, 또 뛰어난 학생들보다는 교수적 도움이 필요한 여러 소외된(marginalized) 학생들의 학교 안팎의 문식활동에 대한 연구들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최근 3년간 LRA 학술대회는 읽기 연구보다는 쓰기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심층적으로 살펴본 총 열한 개 분과 중 다섯 개의 분과(1, 2, 3, 5, 6)에서 쓰기가 공통 키워드로 나타났다. 반면에 읽기는 세 개 분과(3, 5, 6)에서만 공통 키워드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LRA에 참가하는 연구자들은 예비 교사 및 현직 교사에 대한 쓰기 교육 및 학교 현장에서 그들의 쓰기 교육 실태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또한 학교 안팎에서 학생 및 문식 행위자들이 하는 글쓰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식성 교수 및 학습법과 관련된 연구들을 다루는 3분과와 초기 및 초등 문식성에 대한 5분과에서만 여전히 읽기의 다섯 영역(음소 인식, 파닉스, 읽기 유창성, 어휘 발달, 독해)에 관한 교수법 관련 연구들의 비중이 쓰기나 말하기, 듣기 등의 기능들에 대한 연구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최근 3년간의 학술대회 주제들은 문식성의 교수, 학습, 그리고 각 주체들의 문식 행위가 어떻게 공동체의 번영과 사회 변환, 다양한 인종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면서 갈등을 봉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췄다. 그 영향인지 전 분과 중에서 7분과가 가장 많은 수의 세션과 개별 발표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난 3년간의 LRA 학술대회 연구 동향이 국제 문식성 연구 동향을 전부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LRA 학술대회에서 많이 그리고 중요하게 다뤄진 비판적 문식성은 ILA(2018) 설문 참여자들에게는 크

게 관심을 받지 못했거나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반면에 ILA 설문에서 매우 중요시한 초기 문식성의 비중이 LRA 학술대회에서는 낮았다. 또한 LRA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들 중 일부만 출판이 되기 때문에, 출판된 연구물을 대상으로 문식성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경우와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기능적 문식성에서 비판적 문식성으로 문식성 연구와 교육의 초점을 옮겨갈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의 경우 인종이나 문화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공동체, 평등과 같은 가치가 강조되고 있으며 비판적 문식성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양극화의 정도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각종 가짜 뉴스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적 문식성에 기반한 미디어 문식성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문식성 교육이 이러한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수월성뿐만 아니라 다양성도 강조하는 문식성 교육과 연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LRA의 문식성 연구에서 주목할 것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인종적, 문화적, 또는 개인적 능력의 측면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들이 문식성의 주체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있다. 교수학습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정체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문식성의 특징을 탐구하고 그들의 문식성 및 정체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쓰기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들의 독해력이 날로 저하된다는 문제 제기는 있지만, 작문 능력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너무나 낮다(김주환, 2017). 미국의 경우 PISA 읽기 평가 성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학생들의 쓰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 교육과정, 평가 측면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글쓰기야 말로 학생들이 사회적 문식성 실천에 참여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쓰기 교육이 자리 잡기 위한 실제적 연구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본 논문은 2019.10.31. 투고되었으며, 2019.11.19. 심사가 시작되어 2019.12.9.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김정숙·백윤경(2017), 「대학 글쓰기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의 분석과 시사점 - 2005~2017년 대학 글쓰기교육 관련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108, 357-389.
- 김주환(2017), 「중학생들의 작문능력 실태 조사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20, 271-295.
- 옥현진(2010), 「국어교육 질적 연구 동향에 대한 일고찰-연구 타당성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32, 249-268.
- 윤준재·이천희·김영란(2009), 「읽기 교육 연구의 방향-읽기 교육 연구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39, 394-416.
- 마이클麦肯纳(Michael C. Mckenna)·장봉기(2011), 「미국 문식성 교육의 동향과 쟁점들- 어려움에도 움직이지 않는 대상과 무엇도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만났을 때」, 『한국어문교육』 10, 23-62.
- 이병민(2005), 「문식성 개념의 변화와 미국의 문식성 교육」, 『국어교육』 117, 133-175.
- 이순영(2011), 「읽기 연구의 최근 동향과 과제 - 국내외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10, 311-340.
- Gogolin, I. (2018), "Literacy and language diversity: Challenges for education research and practice in the 21st century". In L. D. Hill & F. J. Levine(Eds.), *Global perspectives on education research*, NY: Routledge.
- International Literacy Association(2018), *What's hot in literacy report*, DE: ILA.
- Krippendorff, K. (2004),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2nd ed.), CA: Sage Publications, Inc.
- Literacy Research Association(2016), "Mobilizing literacy research for social transformation", *Program of the 66th annual conference of the LRA*, TN: LRA.
- Literacy Research Association(2017), "Literacy research for expanding meaningfulness", *Program of the 67th annual conference of the LRA*, FL: LRA.
- Literacy Research Association(2018), "Reclaiming literacy research: Centering activism, community, and love", *Program of the 68th annual conference of the LRA*, CA: LRA.
- Morrison, T. G., Wilcox, B., Thomas Billen, M., Carr, S., Wilcox, G., Morrison, D., & Wilcox, R. T. (2011), "50 years of literacy research and instruction: 1961-2011", *Literacy research and instruction* 50(4), 313-326.
- Parsons, S. A., Gallagher, M. A., & George Mason University Content Analysis Team. (2016), "A content analysis of nine literacy journals, 2009-2014",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48(4), 476-502.
- Snyder, T. D. (Ed.). (1993), *120 years of American education: A statistical portrait*. Washington, DC: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Still, K. L., & Gordon, J. P. (2011), "Five decades of ALER conference session presentations, 1960-2010", *Literacy Research and Instruction*, 50(4), 327-347.

문식성 연구의 국제 동향 —2016-2018 LRA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박소희 · 김주환

이 연구에서는 미국 LRA에서 주최하는 최근 3년(2016-2018)간의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연구 제목들의 키워드 기반 내용 분석을 통해 문식성 연구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최근의 LRA 학술대회는 비판적 문식성을 매우 강조했다. 비판적 문식성에 기반한 다양한 접근법들을 토대로 흑인이나 다중언어 화자, 소외된 학생들의 문식활동에 대한 연구들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둘째, 읽기 연구보다는 쓰기 연구들에 더 관심을 가졌다.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에 대한 쓰기 교육, 학교 현장에서의 쓰기 교수와 학습 실태, 학생들의 학교 안팎에서의 글쓰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셋째, 문식 행위가 어떻게 공동체의 번영과 사회 변환을 장려하면서도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다양한 인종, 성별, 민족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국어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비판적 문식성, 다양성, 쓰기 교육의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핵심어 문식성 연구의 국제 동향, 문식성 연구 학회, 비판적 문식성, 다양성, 공동체, 디지털 문식성, 읽기와 쓰기, 학술대회, 내용 분석

ABSTRACT

International Trends in Literacy Research

—Centering on LRA 2016-2018 Conferences

Park Sohee·Kim Jooewan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international trends in literacy research by conducting a keyword-based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titles that were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s of the Literacy Research Association (LRA) during the last three years (2016-2018). The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it was found that recent LRA conferences heavily emphasized critical literacy. They mainly focused on studies of the literacy practices of black people, multilingual speakers, and marginalized students using a variety of critical literacy approaches. Second, the conferences covered more writing research than reading research. For example, a great deal of attention was given to writing education for 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s, teaching and learning writing in K-12 contexts, and students' writing practices in- and out-of-school. Finally, recent LRA conferences highlighted how literacy could resolve conflicts between various racial, gender, and ethnic groups with different languages and cultures while promoting the prosperity of the community and social transform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literacy research in Korea. First,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focus of literacy research and education in Korea from functional literacy to critical literacy. Second, researchers need to focus on diversity issues as well as excellence related to literacy education in Korea. Last but not least, educators, researchers, and policy makers should make every endeavor to promote writing education.

KEYWORDS International Trends in Literacy Research, Literacy Research Association, Critical Literacy, Diversity, Community, Digital Literacy, Reading and Writing, Conferences, Content Analysis